

설탕→커피→웰빙식품 ‘정성은 그대로’

■ 세월따라 변해온 추석 선물세트 변천사

1960년대는 780원짜리 백설표 ‘그레-뉴 설탕’(6kg)이 백화점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추석선물이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30만원대 갈비세트(냉동육·6kg)가 베스트셀러 상품이 됐다. 선물은 그 시대의 경제적 수준과 소비 의식을 반영하기 마련으로 명절선물의 변천사 속에는 사회의 변화상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60~70년대는 생필품, 70년대는 커피 등 기호식품, 90년대 들어서는 상품권, 2000년대 들어서는 건강식품이 인기를 끌었다.

물가도 크게 올랐다. 명절 선물 베스트셀러 상품인 갈비세트는 70년대 3만원대에서 2000년대에는 30만원대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화장품 세트도 3000원에서 22만원으로 몸값을 73.3배나 불렀고 김 세트(1상자)는 2300원에서 6만원으로, 양말(1족)은 450원에서 6000원으로 각 26.1배, 13.3배 올랐다.

70년대 3만원 갈비세트, 2000년대 30만원 10배 올라

80년대 패션잡화 인기...2000년대 건강·웰빙상품 대세

◇1950~60년대는 최고 선물은 ‘설탕’=전쟁 직후 먹을거리도 부족하고 물건도 귀한 시기였기 때문에 집에서 직접 기르거나 재배한 농·축산물이 당시 가장 큰 정성의 표시였다.

60년대 가장 인기 있는 선물은 설탕, 비누, 조미료 등 생필품이었다. 특히 설탕은 물자가 부족했던 60년대 최고 선물이었다. 아보복, 내의 등 의류도 인기선물에 포함됐으며, 가격대는 2000~3000원대였다.

◇1970년대 과자·커피세트 인기 최고=본격적인 산업화 시대로 접어들고 다양한 공산품이 생산되면서 선물세트 종류도 다양해졌다.

다이얼 세수비누와 화장품 세트, 반달표 스타킹 등 여성 속옷 세트, 합성수지 그릇세트, 커피세트 등이 등장해 여성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기 시작했다.

성인들에게는 커피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어린이들에게는 과자종합선물세트가 최고의 선물이었다. 라디오, 텔레비전, 전자보온밥통,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등 가전제품도 최고급 명절선물로 등장했다.

◇1980년대 고급화·다양화 바람=컬러 TV가 등장했던 시절로 선물 고급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종류도 3000여종으로 늘어났다. 베타이, 스카프, 지갑, 벨트, 양말세트 등 패션관련 상품이 새롭게 떠올랐고 갈비, 정육, 과일, 선어 등의 신선식품도 인기 품목으로 꼽혔다.

먹을거리가 풍족해지면서 10만원대 갈비가 인기 고급선물로 등장했다. 인삼, 꿀, 영지 등의 건강식품도 선물의 반열에 올랐다.

◇1990년대 상품권 등장=1994년에 상품권이 본격적으로 발행되면서 큰 인기를 모았다.

90년대는의 명절선물은 고가제품과 실용적인 중저가 선물세트가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대형마트들이 문을 열고 외환위기까지 겹치면서 참치, 조미료 등 저가의 실속제품이 주목을 받았다.

반면 지난 1996년과 1997년에는 수입양주가 선물 베스트셀러 상품에 오르기도 했다. 130만원을 넘는 레미마틴 루이 14세 양주와 함께 100만원을 웃도는 영광 굴비 등도 인기를 끌었다.

◇2000년대 와인 등 웰빙상품 부상=선물세트는 전과 비교해 ‘웰빙’의 경향이 많이 반영됐다.

와인이 새로운 선물로 급부상하면서 2005년부터는 주류부문 명절 상품 판매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올리브유 등 친환경 먹거리 등이 웰빙선물의 대세로 자리잡았다. 홍삼 등 건강식품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쇠고기 선물세트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인기 선물 상품이 됐다.

휴대용 게임기가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선물로 됐다.

◇2010년 이후 건강과 힐링=건강을 생각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 기상이변으로 신선채소와 과일이 귀해지면서 유기농식품이 인기를 끌었고, 운동 열풍이 불면서 기능성 아웃도어 의류도 인기 선물의 반열에 들어섰다. 올 들어서는 불황의 여파로 저가의 실속형 추석선물세트 상품이 관련 업계 판매량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추석 선물 변천사



1950~60년대

계란·햄살·설탕
비누·조미료·내의



1980년대

양말세트·지갑
과일·정육세트



1990년대

상품권·참치
꿀·과일·수입양주



2000년대

와인·올리브유
갈비·게임기



2010년대

유기농식품
아웃도어 의류

■ 2012 추석연휴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장소

구분	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실시기간	2012. 9. 28 ~ 10. 1	2012. 9. 28 ~ 10. 1	2012. 9. 28 ~ 10. 1	2012. 9. 28 ~ 10. 1	2012. 9. 28 ~ 10. 1
종합상황실	080-600-6000	080-200-2000	080-3000-5000	080-300-3000	080-500-5582
매주(가정)	정읍주안	정읍주안	정읍주안	정읍주안	정읍주안
	이천	이천	이천	이천	이천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삼진강	삼진강	삼진강	삼진강	삼진강
	진영	진영	진영	진영	진영
매주(가정)	함안	함안	함안	함안	함안
	전안	전안	전안	전안	전안
	장안	장안	장안	장안	장안
서해안	화성	화성	화성	화성	화성
	서산	서산	서산	서산	서산
	대전	대전	대전	대전	대전

※ ▲ 귀경선, ▼ 귀향선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 무상점검 받고 안전하게 다녀 오세요

자동차·보험업계 추석 귀성·귀경길 서비스

현대·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귀경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에 나섰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7일 국내 5개 자동차회사가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고속도로 및 국도 등 전국 각지에서 '2012년도 추석 연휴 자동차 특별 무상점검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 5개사가 모두 참여한다.

고객들은 서비스 코너에서 무상으로 엔진 브레이크 타이어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냉각수와 오일 등도 무료로 보충이 가능하다. 또 고장 차량에 대비해 긴급 출동 서비스도 마련된다.

장거리 운행을 위한 차량관리 및 안전운전 요령을 안내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추석 명절 귀향하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코너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홈페이지(www.kama.or.kr)나 현대차(080-600-6000), 기아차(080-200-2000), 한국GM(080-3000-5000), 르노삼성(080-300-3000), 쌍용차(080-500-5582) 종합상황실로 문의하면 된다.

보험회사들도 다음달 초까지 전국 제휴 자동차서비스센터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추석 연휴 무상점검을 한다.

삼성화재는 전국 에니카랜드에서 엔진오일·부동액 등 20가지 항목을 무상 점검해준다. 고객에게 귀경길 안전 운행 요령을 알려주는 이메일도 발송한다. 28일까지 삼성화재 페이스 북에서 추석연휴 계획에 대해 댓글을 달면 추첨을 통해 다음달 초까지 전국 제휴 자동차서비스센터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추석 연휴 무상점검을 한다.

달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과 초코바 기프트콘 등을 증정한다.

동부화재도 다음달 13일까지 프로미카 서비스 특약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내차 사랑 이벤트'를 한다. 프로미카월드를 방문해 차량 점검을 받고 와이퍼 브러시도 무료로 교환할 수 있다. 와이퍼를 선택하지 않으면 워셔액이나 파리바게트 기프트콘을 지급한다.

현대해상과 하이카다렉트는 다음달 5일까지 하이카프라자 방문 고객에게 차량 무상 점검, 워셔액 무료 보충, 타이어 공기압 점검 등을 해준다.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는 성묘 지역 출동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한 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LIG손해보험은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4시간 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석 연휴에 보상 담당자가 비상 근무한다.

AXA다이렉트는 전국 주요도시 SK스피드메이트 매장에서 철야 무상 점검, 워셔액 무료보충, 부동액과 에어컨가스, 와이퍼 50% 할인 행사를 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소폭 상승 BSI 68...기준치엔 크게 미달

광주·전남지역의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가 소폭 상승했다.

2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역의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 471개를 대상으로 '2012년 9월 광주·전남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의 9월 업황BSI와 10월 업황전망BSI는 각각 68과 72로 전달보다 3포인트

와 2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기준치인 100에는 한참 못 미쳐 여전히 현실 경기는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9월 매출 BSI는 82, 생산 BSI는 91, 채산성 BSI는 83으로 전달보다 각각 2포인트, 9포인트, 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매출전망 BSI는 84로 전달과 같고 생

산전망 BSI와 채산성 전망 BSI는 각각 88과 84로 전달보다 2포인트, 1포인트 올랐다.

비제조업의 9월 업무현황 BSI는 68로 전달과 같았고 10월 업황전망 BSI는 73으로 1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체의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25.9%), 원자재 가격상승(16.8%), 불확실한

경제상황(12.1%), 수출부진(8.7%),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7.7%), 경쟁 심화(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BSI는 기준치인 100 이상이면 긍정적인 응답 업체 수가 부정적인 응답 업체 수보다 많음을, 100 이하면 그 반대를 나타낸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한가위

우리의 마음만큼 풍성한 보름달을 바라보며 온가족 함께 모여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고 더욱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 웨버하우스 임직원 일동

웨버하우스
barbecue restaurant
즉석바베큐 & 다양한샐러드바

환영합니다
웨버하우스는 즉석 바베큐와 다양한 샐러드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마음껏 즐길수 있으며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 친구와 함께 행복을 나눌수 있는 공간입니다.

- 평일점심 ₩14,900
- 평일 저녁, 주말, 공휴일 ₩18,900
- 미취학아동 ₩6,000
- 초등학생 ₩9,900
- 영업시간 : AM 11:30 ~ PM 10:00

예약문의 226-0003
충정로 1가 입구 안산빌딩 8F (주차장 완비)